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는 서울시 내 다양한 성평등활동과 여성단체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연구, 교육, 인큐베이팅, 행사, 공간 지원 등 성평등활동가들에게 필요한 기반을 제공합니다.

‘토닥이는 머무름’은 성평등활동가를 위한 ‘쉬는 시간’입니다. 다양한 위치에서 페미니스트로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이 ‘페미니즘 백래시’에 지친 몸과 마음을 여러 도구들을 통해 돌보는 법을 배우고, 이곳에서 쉬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3년차 미만의 여성NGO활동가, 2030 차세대 성평등활동가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진행했으며 커리큘럼은 아래와 같습니다.

토닥이는 머무름

프로그램	강사	장소
1강 / 2강 몸짓, (관습으로 만들어진) 습관을 마주하기	지성은 예술가, 퍼포먼스 '생계형 움직임', '신부수업'	서울시50플러스센터 서부캠퍼스 큰마루교실
3강 / 4강 손짓, 자유롭게 그리기	어슬렁 드로잉 작가, '어슬렁어슬렁 여행 드로잉' 저자	센터 내 교육장 숨1
5강 / 6강 손짓, 진솔하게 쓰기	박소현 출판편집자, '지극히 사적인 페미니즘' 공저자	센터 내 교육장 숨1

이 책은 ‘토닥이는 머무름’ 참여자들이 각각의 워크숍을 통해 만들어 낸 결과물들을 모은 문집입니다.

이 책의 1장에는 몸짓 강의에서 자신의 몸을 움직이며 느낀 점들을 담았고, 2장에는 손짓(드로잉) 강의에서 수업 시간에 그렸던 그림, 숙제로 그렸던 작품들을 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3장에는 손짓(글쓰기) 강의에서 ‘페미니즘 활동가로서의 나’라는 주제로 쓴, 함께 읽고 합평했던 글을 실었습니다.

참여자들이 6주간 스스로를 토닥이며 그려 온 무늬가 이 문집에 고스란히 담겨 있기를 바랍니다.

Contents

여는 말	2
------	---

1. 몸짓	7
-------	---

2. 드로잉	
--------	--

1st scene	26
EJ	29
Sunny	32
민수	35
민지	38
보란	41
상미	44
슬희	47
예빈	50
유닐	53
유이주영	56
지니	59
초초	62
쿠몬	65
혜림	68
혜몽	71

3. 글쓰기	
--------	--

민수	78
민지	85
보란	93
슬희	98
유닐	101
유이주영	105
지니	110



1_몸짓





나에게
몸을 이렇게
움직이는 게
어떤 의미일까
생각하게 되었어요





신부수업
복합6. 머리 팔기

요구되는
동작이
불편했지만
동시에
정확하게,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부드러운
동작들과
파워풀한
동작들에서
약간 묘한
쾌감 같은 것이
있었어요

나에게 주어지는
폭력들에 대해서도
좀 더 민감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뭔가 나도 충분히
겪을 수 있는 건데,
왜 다른 사람에게 행해지는
폭력에만 집중하고 있었을까?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
들이 사실 다 익숙하게
받아들여지는 거 같아요.
막상 이렇게 인식하면서
행동하니까 이상하다, 이
렇게 따르고 있는 내 모
습이 웃기다 이런 생각
이 많이 들었어요. 일상
에선 안 따를 것 같지만
때에 따라서 너무나 익숙
하게 따르고 있지 않나.
근데 그런 것들이 좀 낯
설게 보였던 것 같아요.
내가 행동하는 걸 내가
보고, 내가 행동하는 걸
인식하고 있는 모습이.

일상적인
습관들에 대해
스스로 의식하고
있었던 부분들은
또 다시 뚜렷하게
느끼게 되고,
자각하지 못했던
제 모습들을
볼 수 있었던 게
새롭고 좋았습니다

왜
내가 하는
움직임과
상대방에게 바라는
움직임에
차이가 있는지,
그 기준은
어디에서 온 것인지
인사하는 내 모습이
낯설었어요



여성NGO활동가를 위한 [토닥이는 머무름] 몸짓 (07.25)



차세대 LAB 스쿨 [토닥이는 머무름] 몸짓 (07.27)

나 스스로에게
집중하고 관찰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평소에 내가
남을 많이
의식하고 있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2_드로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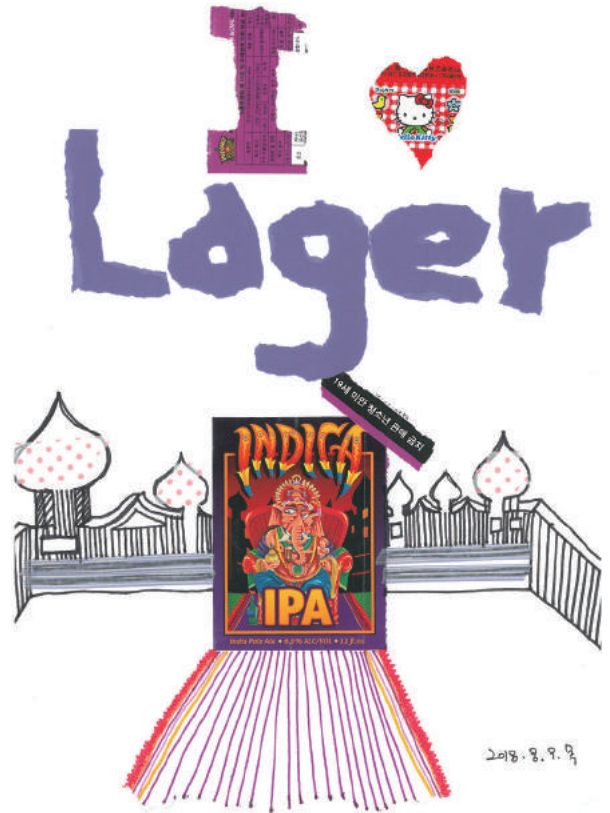


1st sce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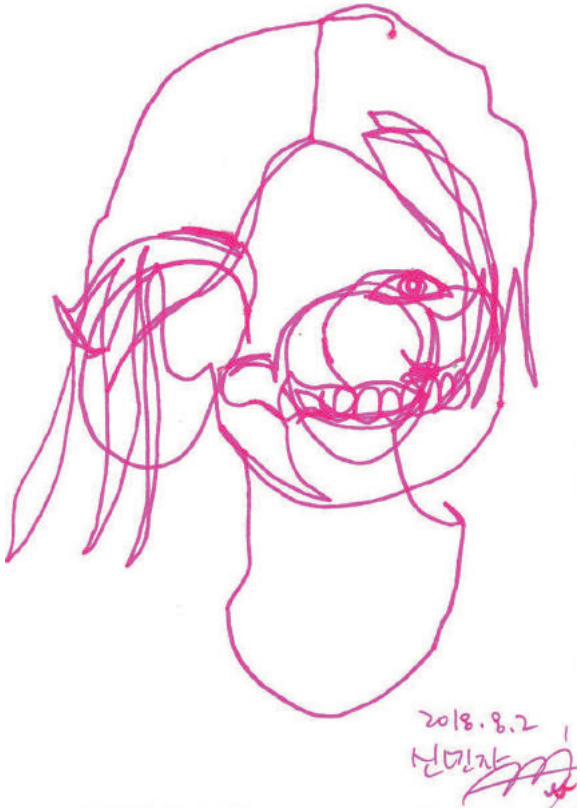
2018. 8. 2. 목
나의 왼손의 시계

1st scene 《나의 왼손 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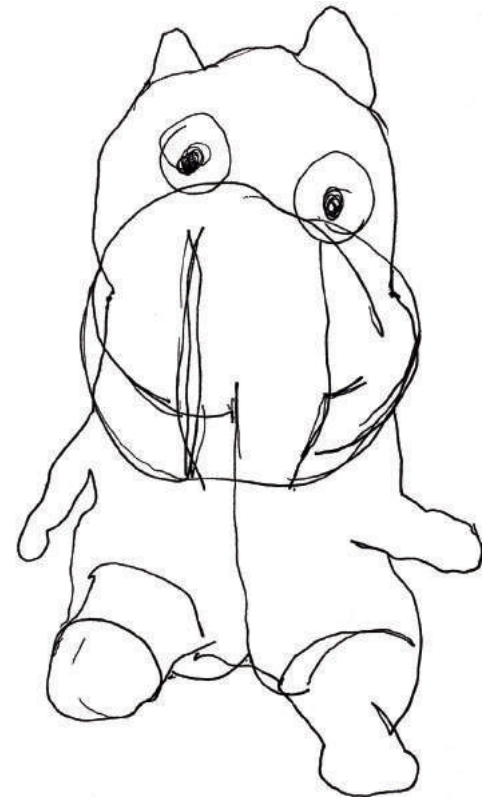
2018. 8. 9. 목

1st scene 《어젯밤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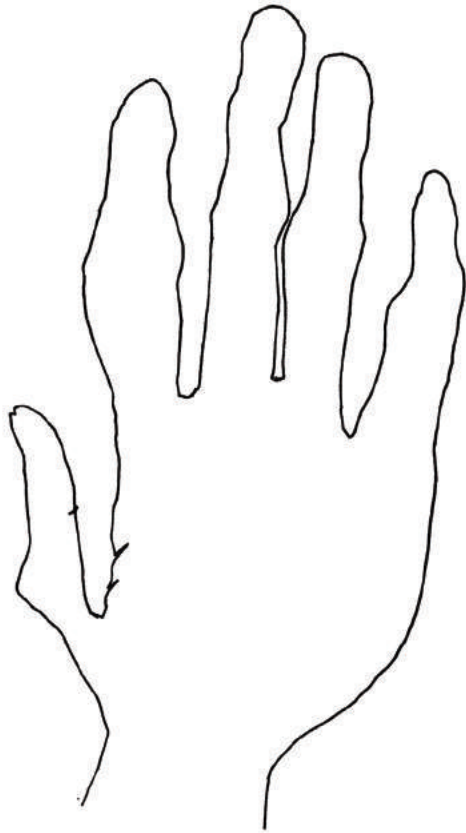


1st scene 《Sh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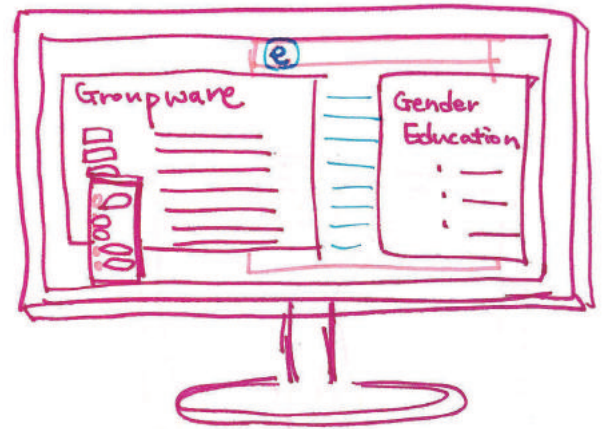
EJ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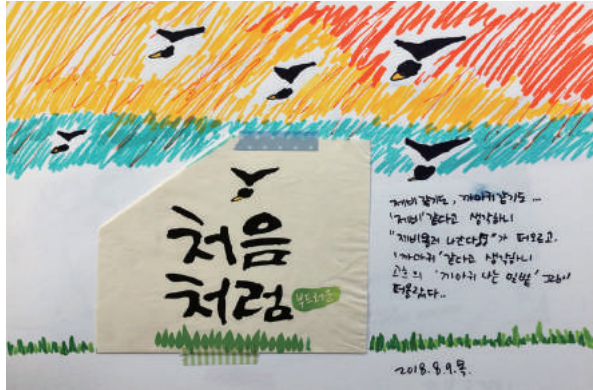
EJ 《나를 토닥이는 무민인형》



EJ 《나의 오른손》



EJ 《매일 보는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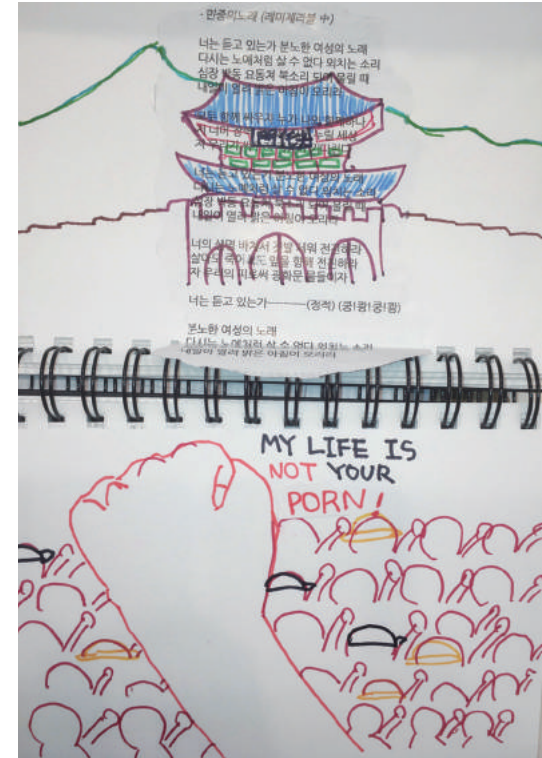


Sunny 《처음처럼》



Sunny 《대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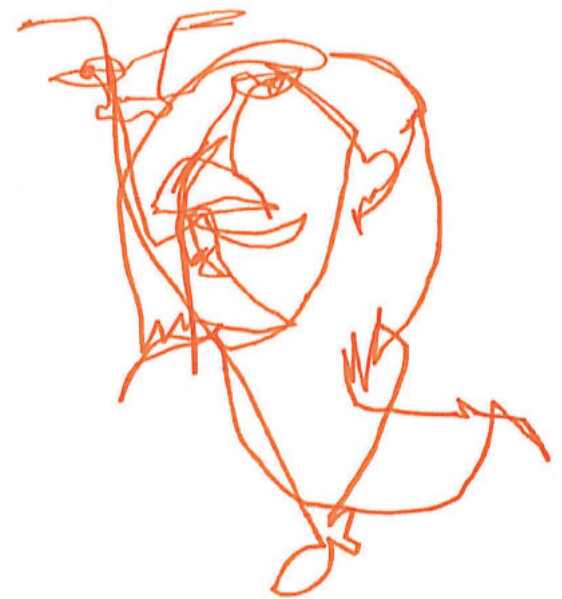
민수



민수 《불편한 용기》



민수 《내 발》



<2018.08.03
민수>

민수 《무제》

민지



내가 제일 좋아하는 홍시쥬스!

2019. 09. 10

민지 《내가 제일 좋아하는 홍시쥬스》



민지 《어머 이건 사야해》



2018.08.08.
마음이 급해서
1년이 먼저 2018년 8월
그림도 재밌어!

민지 《무제》

보란



보란 《밤기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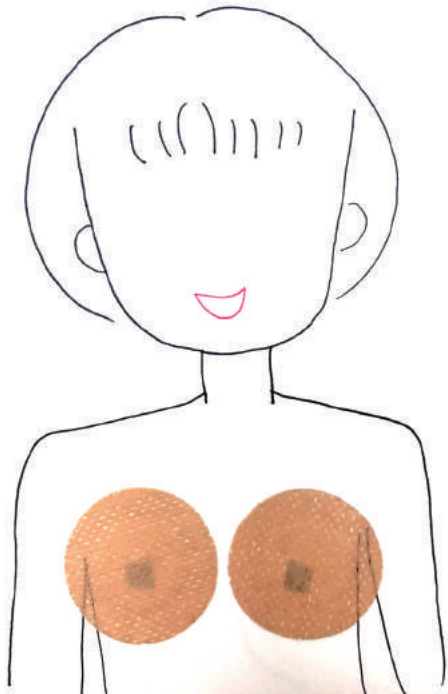


보란 《스투키》



보란 《플라스틱》

상미



상미 《무제》



상미 《무제》



상미 《무제》

슬희



슬희 《with》



슬희 《반짝반짝 빛나는 미술치료사 빛나는 구슬희》



슬희 《북극곰을 좋아하는 여전히 여전한 나》

예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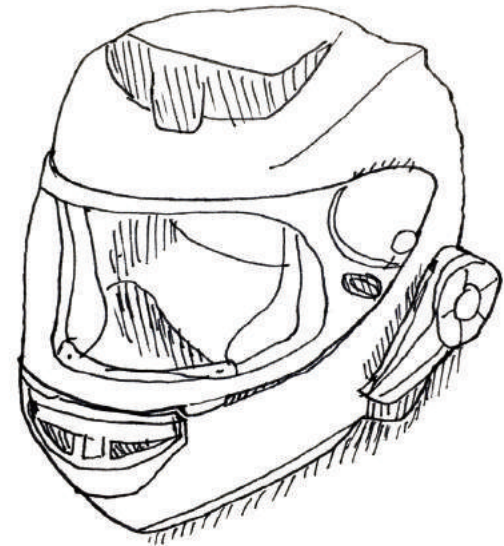
예빈 《도어락도 두들겨 보고 달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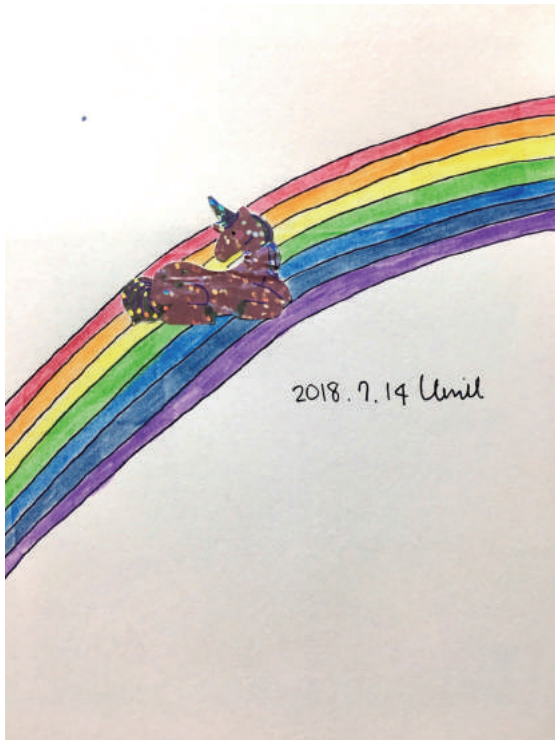
예빈 《터키베이컨 15cm 토마토 빼고 소스는 랜치, 사우스웨스트, 스위트너니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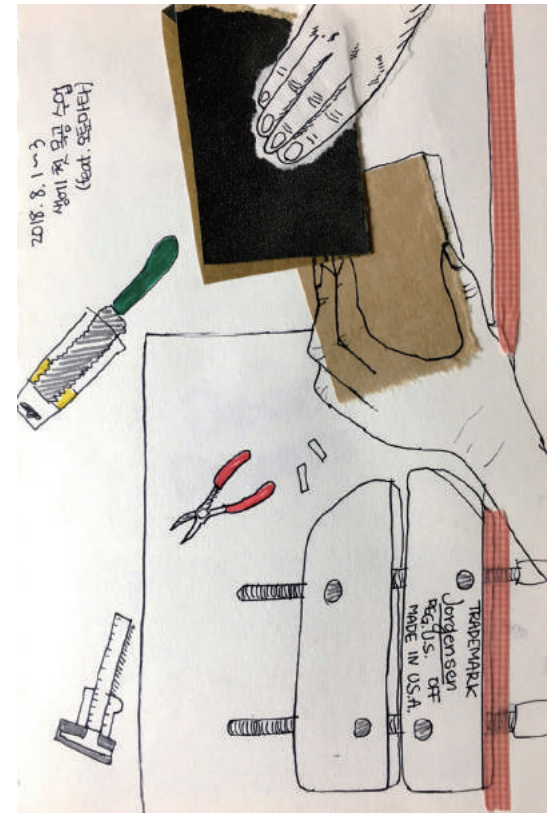
예빈 《“대학생 됐는데 왜 화장 안 하고 다녀?”》



유닐 《첫 헬멧》



유닐 《PRIDE》



유닐 《목공의 시작》

유이주영



Self-Portrait

1st Touch 종이 보지안고 2차이

2nd Touch 디저트 2차이

3rd Touch 2차이

유이주영
2018. 08. 05.

유이주영 《자화상》

FEMINISM



유이주영 《페미니즘》

HEAL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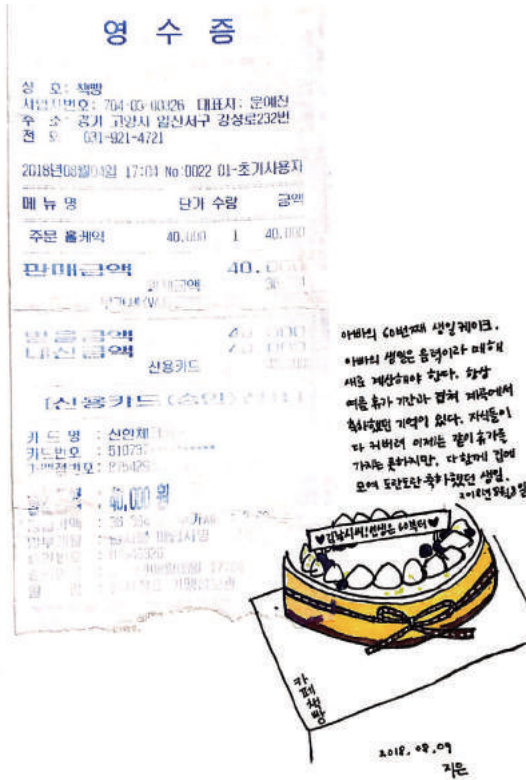


유이주영 《고통》

지니



지니 《꿀잠 보장》



지니 《도란도란 생일케이크》

2018.08.04



지니 《애정을 담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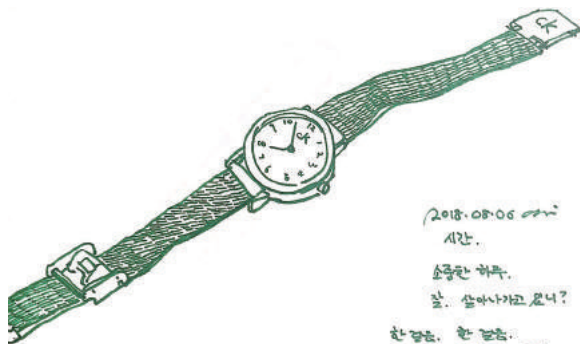
초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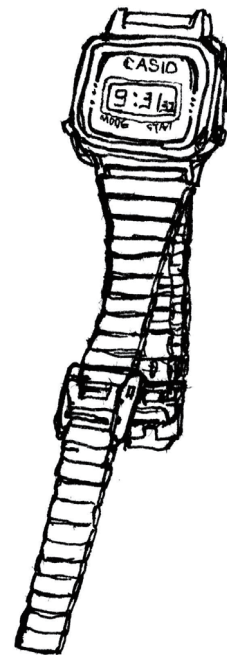
초초 《팝콘같은 조카의 웃음》



초초 《언제나 네 편이 되어줄게》



초초 《눈과 손이 하나로 움직이는 것》



쿠몬 《없으면 너무 허전한 것》



쿠몬 《나를 지켜줘서 고마워》



2018.8.9
 26세

쿠몬 《팀장님 죄송해요》

헤림



헤림 《틴트》



헤림 《불법촬영 규탄시위》



HAWAII BRACELET
2018.8.3
CAILYN 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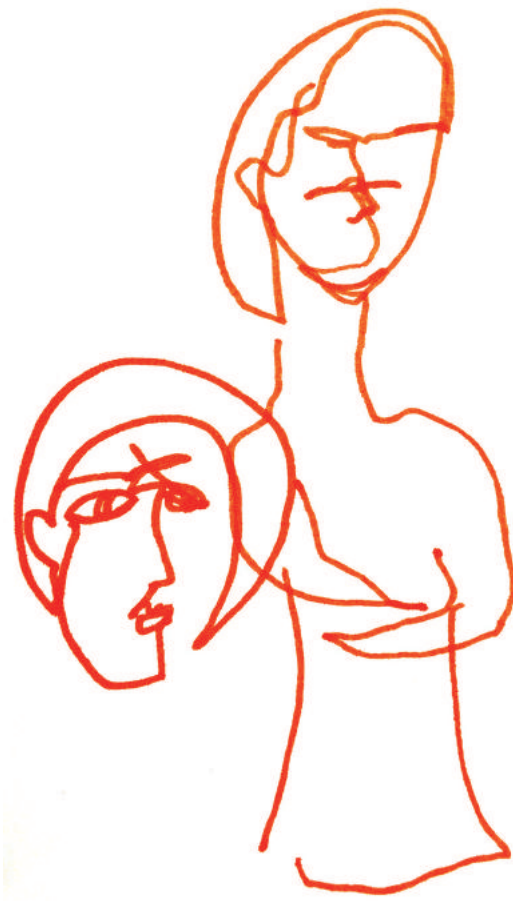
헤림 《하와이 팔찌》



헤몽 《여름에 만난 사람들 I》



혜몽 《여름에 만난 사람들 II》



혜몽 《여름에 만난 사람들 III》



3 글쓰기



페미니즘 활동가로서의 나

민수

내가 페미니즘을 제일 처음 접한 것은 강남역 살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였다. 그때는 페미니즘이라는 개념 보다는, ‘여자’라서 당했다, ‘여자’라서 죽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으로 다가왔었고, 어쩌면 그 대상이 나였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들었다. 왜 여자만 이렇게 밤낮으로 공포와 불안에 떨며 살아야 하는지 억울했고, 그에 대해 깊게 생각할 수 있던 기회가 되었다. 그렇게 한번 관심을 가지게 되니까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게 보이기 시작했다.

‘김치녀’, ‘된장녀’, ‘김여사’ 등과 같은 여성혐오적인 단어들과, 그걸 여남 상관없이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는 모습이 나에겐 충격으로 다가왔다. 명품을 사는 여자는 된장녀이고, 명품을 사는 남자는 능력 있는 남자가 된다. 운전 못하는 여자, 도로에서 사고를 내는 여

자는 자연스럽게 김여사라고 불렸다. 그런데 실제 도로에서 사고를 가장 많이 내는 성별은 남자라고 한다. 왜냐면 도로 위에는 대부분 남자들이 있으니까.

페미니즘을 접하고서 처음엔 정말 힘들었고, 도망치고 싶었다. 여성혐오가 이곳저곳 묻어 있는 일상이 너무 끔찍했다. 이게 현실이라고 믿고 싶지 않았다.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영화 아가씨의 대사를 인용해서, “페미니즘은 내 인생을 망치려온 나의 구원자”라는 말을 종종 한다. 그런데 저 말은 정말 맞는 말이다.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이 사람을 만나도 저 사람을 만나도, 여성혐오가 보이고, 들리고, 만져진다.

처음에는 너무 조금했었다.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한데 왜 다들 가만히 있지? 나만 화나는 건가? 이걸 정말 아는데...’라는 생각이 항상 내 머릿속을 떠다녔고, 답답한 마음에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주위 사람들에게 떠먹여주기도 했다. 그때마다 돌아오는 대답은 도리어 나를 힘 빠지게 하였다. “다들 가만히 잘 살고 있는데, 왜 너 혼자만 예민하게 구냐”, “나는 여성혐오 같은 거 못 느꼈는데? 네가 이상한 거 아니야?” 등등 이해 못하겠다는 반응들로 인해 마치 혼자 이상한 사이비 같은 곳에 빠져서 예민하게 구는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도 들었다. 정말 너무 괴로웠다.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들었었다. 페미니즘을 알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다시 그때처럼 돌아가긴 싫었다. 그때 누군가 쓴 글을 보았는데, 어떻게 인권운동이 마냥 즐겁고 편하기만 할 수 있겠냐는 내용이었다. 그때부터 주위 신경 안 쓰고, 구원은 셀프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가는 길만 보게 되었다. ‘내가 달라지면 주위 사람들도 날 보고 조금은 느끼는 게 있을 것이고, 조금은 달라지겠지’라고 생각했다.

과거에 나는 자기혐오로 톨톨 뭉쳐진 아이였다. 남들보다 못생긴 내 얼굴이 싫었고, 친구들처럼 마르지 않고 통통한 내 몸이 싫었다. 거리를 나가도 모두 나를 쳐다보는 거 같아 무서웠고, 내 외모를 욕할까 봐 무서웠다. 그래서 계속 화장으로 날 덮고 가렸었다. 화장 없이는 집 앞도 나가지 못했다. 쓰레기를 버리거나 집 앞 편의점을 갈 때도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푹푹 감싸고 나갔었다. TV에 나오는 마른 몸이 너무 부러웠었다. 나도 짧은 바지를 입고 싶고, 딱 붙는 티셔츠를 입고 싶었다. 그 마음이 너무 강해서 어느 날 밤은 그날 먹었던 음식을 모조리 토했었다. 속을 게워내고 나니까 몸이 가벼워진 기분이 들었다. 웬지 살이 빠진 것만 같았다. 그래서 그 이후로 매일 밤 울면서 손가락을 입

안에 넣어 억지로 내 속을 게워냈었다. 그렇게 계속 반복하다 보니 한 달만에 5킬로그램 정도 빠졌었던 것 같다. 내 인생 최저 몸무게였다. 그런데 나는 몸도 마음도 너무 아팠었다. 나중에는 하루에 500칼로리를 겨우 먹는 정도가 되었다. 그런데 주위에서는 “민수 살이 엄청 빠졌네”, “살 빠지니까 너무 예쁘다” 같은 말들을 했다. 가족도, 친구도, 남자 친구도 모두 그랬다. 난 너무 아픈데, 다들 예쁘다고만 했다. 기분이 이상했다.

여초 커뮤니티에 ‘먹토’만 검색해보도 나 같은 일을 겪은 여성들의 글이 최소 백 개는 나온다고 한다. 그런데 남초 커뮤니티에는 열 개도 안 되는 글이 나온다고 한다. 왜냐면 남성들은 예쁜 외모와 마른 몸매를 가질 필요가 없으니까. 예쁜 외모와 마른 몸매는 우리 사회가 여자에게만 부여한 싸구려 가짜 권력이니까.

내가 투블럭으로 머리를 자르게 된 계기는 이렇다. 어느 날 지나가는 커플들을 자세히 보게 됐다. 다들 하나같이 여자는 ‘긴머리+화장+원피스’ 아니면 활동하기 불편하고 예쁘기만 한 옷들을 입고 있었고, 남자들은 맨얼굴에 머리에 왁스만 대충 바르고(그것마저도 안한 남자들이 대부분이었다), 티셔츠나 셔츠에 편한 바지에 편한 신발을 신고 있었다. 그걸 보면서 나

는 저게 권력이구나 하고 느꼈다. 편하게 다녀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 것, 저게 권력을 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행동이구나 하고 느꼈다. 여성들은 회사나 학교에 화장기 없는 얼굴로 가면, ‘어디 아프냐, 왜 화장을 안 했냐, 화장은 예의다’라는 말을 꼭 듣는다. 왜 화장이 예의일까? 화장한 얼굴이 정말 예의라면, 남자들은 예의가 없는 사람들만 잔뜩 있는 것인가? 여성들은 나노 단위로 검열받는다. 우리 사회는 여성들에게만 너무 각박하다. 머리를 튜블력으로 자르고 제일 많이 들었던 소리가 “남자가 됐네”였다. 태어날 때부터 여자는 장모종, 남자는 단모종으로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그리고 나의 짧은 머리와 화장기 없는 얼굴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불만을 내뿜는 사람들은 대부분 남자들이었다. 사내아이처럼 그게 뭐냐고, 여자임을 포기한 것이냐고 하면서, “나는 예전에 네가 더 예뻐서” 등등 멍청한 소리만 잔뜩 늘어놓았다. 이 편한 것을 왜 자기들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난 남자를 따라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에서 부여한 여성성을 탈피한 것이다. 사회에서 여자에게만 강요된 코르셋을 벗은 것뿐인데 남자 같다는 소리를 듣는 것은 그동안 남자들이 편하게 살아왔었다는 증거고, 우리가 아직 세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뜻이다. 탈코르셋은 그저 편해지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 사회가 부여한 여성성

을 파괴한다는 의미가 제일 크다. 머리와 화장을 놓게 되니까 잘 수 있는 시간이 두 시간이나 늘어났다. 두 시간 더 잤을 뿐인데 하루가 정말 개운해졌다. 머리 하나 잘랐을 뿐인데 삶이 정말 달라졌다. 예전보다 자신감도 생기고,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는 것도, 하게 된 것도 많아졌다. 과거에 나를 혐오하던 나 자신이 어디 갔나 싶을 정도로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게 되었다. 나 스스로 외모평가를 멈추게 되어서다.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것은 생각보다 더 많은 힘이 필요하다. 눈, 코, 입, 얼굴형, 내 몸매, 하나하나 평가하다 보면 내 자존감은 어느새 바닥나 있다. 머리를 자르고 나니 그제야 내가 보였다. 아 그냥 내 눈, 코, 입이구나, 내 얼굴이구나, 내 몸이구나, 인정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

요즘엔 하고 싶은 게 많이 생겼다. 아이들을 위한 동화책을 쓰고 싶다. 성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저 왕자님을 기다리는 예쁜 공주가 아닌, 그 성에서 스스로 탈출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진취적인 공주, 왕자 없어도 잘만 살아가는 공주가 나오는 동화나 만화를 만들고 싶다. 어렸을 때 보는 만화나 동화가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 고정 관념과 편견을 심어주는 것 같다. 이게 나의 지금 가장 큰 꿈이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여성인권과 관련된 시위에 참여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 페미니즘 도서와 자료들을 읽으면서 지식을 쌓는 일이다. 이미 여성인권 관련 직종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에 비하면, 난 아직 번데기다. 그분들이 나비라면, 나는 번데기다. 그분들처럼 될 준비를 하고 있는 번데기다.

아직 많이 모자라지만 조금 더 공부해서 여성인권 향상에 작은 힘을 보태고 싶다. 그 작은 힘이 모여서 큰 힘이 되고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이상 여성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나 같이 코르셋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다치는 여성이 없는 그런 세상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목소리를 낼 것이다. 이제 시작이다. 이 길에는 분명히 끝이 있으니까 앞으로 더 열심히 나아갈 것이다. 넘어지더라도 나와 같이 열심히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무너지지 않고 같은 목소리를 내며 더 노력할 것이다.

페미니즘 활동가로서의 나 :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민지

‘엄마와 나’

“엄마 나 쏘켓하고 싶어.” “안 돼. 하지 마.”

“왜? 하고 싶다는데.” “그냥 싫어. 하면 쫓아낼 거야.”

그냥 싫다니. 그게 뭐야. 내가 하고 싶은 머리를 하겠다는데 왜? 괜한 반발심에 엄마한테 따지듯이 물었다. 엄마는 명확한 이유를 말해주지 않고, 그저 싫다고만 했다.

사실, 그 이유를 어렴풋이 알고 있다. 엄마가 나에게 바라는 그 이미지 때문일 것이다. 엄마는 나에게 여성스럽기를 요구했다. 딸이 화장도 좀 하고, 치마도 입고, 살도 빼고, 꾸밀 줄 알기를 바랐다. 엄마가 자신을

꾸밀 줄 알고 그걸 좋아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 이유에 이런 말이 따라 붙어서 나는 매번 괜히 탄소리를 했다. “여자가 살 빼고 예뻐지면, 인생이 달라져.”

엄마는 내가 여자로서 행복하기를 바라? 밤늦게 다니면 빨리 들어오라고 전화하고, 내 앞에서 굳이 오빠를 초대한 여자 친구를 그렇게 욕했으면서. 엄마가 아픈 게 싫어서 내가 설거지하고 방 청소하면 그렇게 미안해했으면서.

지나가듯이 엄마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살 빼고 예쁘게 꾸며봐. 엄마 친구들한테 자랑하게.”

엄마가 바라는 딸의 여성스러움은 남에게 자랑할 수 있는 성질이 되기 위함이었다. 꼭 자랑하기 위해서만은 아니겠지만 엄마는 내가 살을 빼고 날씬해져서 예쁜 옷을 입은 딸이기를 바랐다. 엄마가 나를 소유의 개념으로 본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깨닫고 나니 마치 내가 트로피인 것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엄마가 바라는 딸의 모습과 내가 살고 싶은 삶에 대해서 분리하려고 더 애썼던 것 같다. 온전한 나이기 위한 투쟁이었다.

있지 엄마. 나는 살 빼고 예뻐지지 않아도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나는 여자로도, 딸로도 존재하고 싶지 않아. 늘 말하지만, 나는 붙는 옷보다 편한 옷이 좋고, 여성스러운 거보다 개성 있고 독특한 게 더 좋아. 내가 이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 나의 선택을 존중해달라는 건데.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이야기하다 보면 끝도 없는 가족과의 관계에 대해서 고민이 참 많다. 조금씩은 이 밀착된 관계를 정리해야 하지 않을까? 풀지 못한 과거의 응어리가 지금까지 남아서 괴롭다. 나는 나이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엄마와의 밀착된 관계를 거스르는 행위를 선택할 때면 죄책감에 사로잡혀 결국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버리고 만다.

‘오빠와 나’

안녕, 오빠. 나는 어제도 공포감을 느꼈어. 과거의 기억 때문일 수도 있고, 오빠가 남자라는 성별이기 때문일 수도 있어. 새삼스럽게 왜 그런 말을 하냐고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있지, 나는 매번 공포감을 느껴 왔어.

오빠는 나를 편하게 살아왔어. 아들이라는, 남성이라는 지위로. 화가 나면 있는 대로 드러냈고, 귀찮으면 어지르고 치우지 않고 나가면 됐잖아. 그럼 나는 또 내가 죄인이요 하는 태도로 알아서 기었고, 엄마가 힘들게 치우는 게 싫어서 방 청소를 했어.

어제도 그랬어. 이들의 외박 후에 들어와서는 엄마에게 배고프다고 집에 먹을 게 있냐고 물었지. 그리고 오리고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는 나에게 해달라고 했지. 나는 엄마 옆에 붙어서 하기 싫다는 의사를 보냈어. 엄마도 자기 귀한 딸 부려먹지 말라고 알아서 해먹으라고 말해줬어. 근데 그게 그렇게 화낼 일이야?

나는 엄마 옆에 누워서 조마조마하고 있었어. 그냥 내가 해주고 넘어가면 될 일이었을까? 왜 매번 일이 이렇게 되고 나서 후회하지? 엄마는 그냥 내버려두라고 말했지만, 나는 큰 죄라도 지은 것처럼 무서워서 숨죽이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

사실 오빠와의 사이가 나쁜 것도 아니어서 그럴 때마다 괴리감을 느낀다. 친구처럼 잘 지내다가도, 언제든 맞거나 고함을 들을 수 있다는 과거의 경험이 몸에 남아 나를 괴롭힌다. 나는 오빠가 나이나 성별로 나를

억압할 수 있다는 사실이 두렵고, 내가 두려워한다는 사실에 또 슬프고 분노한다.

달라질 수 있을까? 우리가 서로에게 가진 권력이 무엇인지 깨닫고, 이에 대해 이야기하는 날이 올까? 오빠와는 여전히 이런 이슈를 드러내기가 어렵고 친밀한 관계는 이러한 논의를 흐리게 만들어버린다.

‘아빠와 나’

아빠는 가부장제의 가장 큰 수혜자이자 피해자다. 본인의 권위를 지키고자 하지만, 현실은 초라하기에.

아빠와의 관계는 원만하다. 살갑게 애교 부리는 딸과 그런 딸을 예뻐하는 아빠의 모습이다. 다만 아빠의 가부장적인 모습과 그 권력이 답답할 때 나는 잔소리를 하고 화를 내게 된다. 그러면 아빠는 허허 웃어넘기거나 묵묵부답으로 대응한다. 본인의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참아버리는 것은 가부장제 아래에서 아빠가 갖게 된 부담 때문인 것 같다.

아빠는 집안일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본인의 일이 아니라는 것처럼. 언제나 답답하고 참지 못하는 엄마와 내가 시달린다. 예전에 책에서 여자는 남편이 밥을 굶을까 봐 걱정하는데 남편은 아내가 밥 굶을까 봐 걱정한 적이 없다는 데에서 충격 받았다는 내용을 읽은 적이 있다. 내가 아빠를 걱정하는 것과 맞닿아 있었다. 특히나 아빠는 밤에 택시 운전을 하고 낮에 잠을 자기 때문에 활동 시간대가 달라 마주치는 시간도 짧고 같이 밥을 먹기도 어려워 걱정하게 된다.

걱정하는 건 밥뿐만이 아니다. 집안의 분위기를 살피는 것도 내 몫이다. 아빠는 놀기 좋아하고 술과 담배도 무척 좋아한다. 그래서 집에 들어오지 않고 당구를 치거나 술을 마시며 놀다가 늦게 들어오는 경우가 잦다. 그렇기에 엄마와도 마찰이 심하다. 언제나 고래(부모님) 싸움에 새우(나) 등이 터질까 조마조마하다. 아빠가 집에 늦게 들어오시거나 문제가 생기게 되면 큰 소리가 나는 것을 막기 위해 청소를 하거나 계속해서 눈치를 살핀다. 피곤한 일이다.

경제적·실질적 권력을 가진 것도, 자식들과 정서적 관계를 맺고 있는 것도 엄마이기에, 아빠는 늘 곁에 있지만 곁돌고 있다. 아빠는 변하지 않을 테고, 나 역시

독립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는 없겠지만, 아빠에 대한 안타까움이 남아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된다.

‘나’

앞선 상황들을 겪으며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독립된 나로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를 생각하게 된다. 내가 가족이라는 울타리에서 제대로 나가 본 적이 있던가? 가족은 든든한 버팀목이면서 또 그만큼 나를 억압하는 기제로, ‘나’를 온전히 사유하기 힘들게 만들었다. 그래서 나는 나이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나를 잘 모른다. 유독 스스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어렵다.

이렇게 가로막힌 생각들은 페미니즘을 만나면서 조금 달라졌다. 내가 불편한 것이 무엇인지 조금씩은 정의내릴 수 있게 되었다.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 많은 것을 공유하면서 나를 정체화하고 생각을 확대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여전히 ‘나’를 알기가 제일 어렵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글을 쓸 수 있을 정도로 나의 언어를 찾았다는 것이 기쁘다.

가족에 대한 감정과 경험들은 정리되지 않은 채로 남아 여전히 이야기를 꺼낼 때면 가슴이 쿵쿵 아파와 숨쉬기가 어렵다. 이 웅어리를 풀어내지 못해서 괴롭다. 이건 아마도 전문가의 도움이나 스스로 극복하는 과정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이 글을 작성하는 것은 더욱 의미 있다. 나는 이 글이 그 과정의 첫걸음이기를 바란다. 기록하고 사유하고 생각을 확장시켜 극복하거나 나를 만드는 기반으로 삼고 싶다.

활동가로서의 삶

보란

남학교에 근무하면서 말하기 시작했다. 스스로 방어하고 학교 차원의 대책을 요구하기 위해 불편했던 나의 경험을 말할 수밖에 없었다. 수업 시간에 학생이 질문을 하는 동안 치마가 들춰진 일부터 시작해 성적인 농담이나 폭언을 들었던 일이 종종 있었는데, 용기를 내어 동료 교사에게 사실을 말할 기회가 있었다. 알고 보니 이런 일을 나만 겪은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매우 놀라웠다. 대부분 타인의 시선 때문에 학교에 알리지 못했다고 했다. 가끔 사안이 심각해 교사가 직접 문제 제기를 해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부장 교사나 관리자는 사건을 사소하고 개인적인 일로 축소시켰다. 결국 당사자와 직접 관계한 사람 외에는 알지 못하는 일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아무도 모르는 일처럼 같은 사건들이 반복되고 있었다.

내 경험을 들은 가족과 동료들은 당연히 겪을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학과 사무실과 학생부에 가서 사실을 말하고 도움을 요청하면 부장 교사와 관리자들도 “사랑으로 학생을 감싸라”고 말했다. 그들은 이런 말들을 단 한 번 의심해보지도 않고 자신 있게 말했다. “나는 (남성이라) 경험해봐서 아는데, (나이가 어리고 미성숙한) 청소년은 본능적으로 그럴 수 있다”라는 이유를 항상 붙였다. 나는 이 화법이 여성과 청소년을 자신들과 분리시켜 말하는 것 같아 매우 불편했고, 소외되는 느낌까지 들었다. 언어적 폭력과 성희롱을 묵인하고 감정 노동까지 강요하는 환경에서 나 혼자만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 무렵, 동료 교사의 제안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서 여성위원회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노조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가입을 했지만 주변의 시선 때문에 활동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 마더피스 타로 카드를 함께 배우는 프로그램에서 처음으로 여성 활동가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시간이 나에게 큰 위로와 치유가 되었다. 여성이 주인공이면서 다양한 인종과 동식물이 자유롭게 그려진 그림을 보며 서로의 고민을 나누었다. 그 과정에서 그동안 가족과 사회로부터 억눌린 섹슈얼리티와 욕구들을 직면하고 나 다운

모습을 찾아갈 수 있었다. ‘여성다움, 개념녀’라는 성별 이분법과 여성혐오에서 벗어나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단어들을 하나씩 발견할 수 있었다. 이혼을 하고 스스로 만든 방어막 안에서 잔뜩 웅크리고 있던 나는 조금씩 꿈틀했다. 그러다 제 1회 페미니스트 교사 캠프 마지막 날, 가까운 지역에 근무하는 선생님들끼리 모여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독서 모임을 제안했다. 다행히 선생님들이 함께하자는 의견을 주었고 한 달에 한 번씩 만남을 이어갔다. 학교에서 근무하면서 또는 일상에서 불편했었던 일들을 각자 얘기하면서 서로 공감하고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다시 들여다보는 시간들이 내게 큰 용기를 주었다. 그리고 올해 페미니즘 교육 이론연구팀을 총괄하고 이끌어가는 역할을 맡으면서 팀원들의 다양한 욕구와 갈등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가부장체제’와 ‘섹슈얼리티’와 같은 중요한 주제들을 발견하게 되었고 관련 이론을 연구하는 여성 활동가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장을 마련하게 되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기회를 잡으면서 나의 단단했던 세계에 조금씩 균열이 갔다. 특히 제 2회 페미니스트 교사 캠프를 기획하고 준비하는 회의를 진행했는데 활동가들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현실이 되어 갈수록 완벽과 완성에 대한 압박으로 인한 긴장을 덜어낼 수 있었다. 준비 없이 시작한 활동이라 두려웠지만 그럴 때마다 이야기

를 들어주고 용기를 주는 동료들이 있었다. 갑자기 인원에 공백이 생기거나 착오가 있더라도 동료 활동가들과 고민하고 함께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내 안에 점점 커져만 갔다. 그러다 보니 여유를 가지고 점점 즐겁게 활동해나갈 수 있었다. 도심의 열기보다 더 뜨거웠던 서울퀴어문화축제에서 ‘학교 바꿈 프로젝트’를 주제로 부스를 운영하고 마더피스 타로 상담과 손 글씨 쓰는 것을 지원하는 활동을 했다. 참가자들은 피약별 아래에서도 걸음을 멈추어 ‘성소수자를 지우지 않는, 혐오 없는 학교’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림을 그리고, 목소리를 내고, 꺾꺾 눌러왔던 고민들을 들려주었다. 나는 여성, 성소수자가 학교와 일상에서 겪는 차별과 혐오, 주변화의 문제에 대해 우리 모두가 제대로 인식하고 이를 개선해야 하는 활동이 필요하며 조합에서도 매우 시급하게 여겨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작년 여름 ‘#학교에 페미니즘’이라는 해시태그를 트위터에 올리면서 시작했던 것이 ‘법외노조 취소 투쟁’, ‘페미니즘 교육의무화 청원에 대한 입장발표’, ‘낙태죄 폐지 집회’, ‘안희정 무죄 판결 규탄집회’ 등 1년의 활동으로 이어졌다. 그 과정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다. 그들은 나를 두고서 새로운 일에 용기 있게 도전하고 상대방이 고민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신중한 사람이라고 표현해주었다. 그 말이 참 많이 어색하기도 했지만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다.

사실 나는 아직도 사회에 문제를 제기하고 정당한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해 망설임이 있다. 올해는 인문계 고등학교로 어렵게 옮겼고 3학년 담임교사를 맡다 보니 시간에 항상 쫓겨 일을 할 때가 많다. 또한 학교는 관리자의 의견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대학 입시를 위한 교육 활동이 중심이라서 여성, 성소수자 문제를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노조 안에서도 ‘여성,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보려는 노력이 매우 시급하게 필요한데, 이를 반대하거나 공감하려는 의지도 정말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요즘은 활동을 잠시 쉬어야 하나 고민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멈출 수 없다. 왜냐하면 활동가와의 만남을 통해 청소년과 여성, 성소수자를 타자화하는 나의 인식을 돌아보고 생각해볼 때가 많기 때문이다. 그런 과정을 통해 나의 삶을 다르게, 즐겁게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일상을 다르게, 즐겁게 만들어가는 일을 시작해보기도 한다. 이 세계가 부당하다고 말할 수 있는 불편함의 경험이 내 안에 겹겹이 쌓여 있으므로.

움직이는 용기의 첫 번째 증거, 여성 활동가로서의 나

슬희

이름도 귀여운 토닥이는 머무름 워크숍 첫째 날이 내겐 아직도 생생하다. 평소 같으면 몇 차례 길을 헤맨 뒤에야 표지판을 발견했을 텐데, 그날은 헤매지 않고 2시간 정도 빨리 도착했다. 연구 참여자 모집 포스터를 꺼내들고 인접한 상가, 병원, 상담소 등을 눈길 닿는 대로 둘러 보고서 6시를 2분 앞두고 발견한 한국여성정책연구원까지 방문했다. 그러고 나서 여유롭게 서울혁신센터에 들어섰는데 그제야 센터 안이 거북이 등처럼 갈라진 길도 많고 건물도 여러 개인 줄 알게 됐다. 어디선가 불었을 한 줌의 바람 대신, 나의 몸 무늬결을 따라 흐르는 땀을 의식하며 또 방향 없이 사방으로 퍼지던 고온의 호흡을 고르며 설레기도 하고 낯설기도 한 마음들과 함께 우여곡절 끝에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에 도착했다. 균형이 맞지 않는 의자에

앉은 것처럼 불편하게 스스로를 예비 활동가라고 소개한 뒤부터 매주 워크숍마다 나에게 예비 활동가란 어떤 의미인지 스스로 묻고 답하는 일이 의식처럼 계속되었다. 성폭력, 여성, 소수자, 차별 등의 주제에 대해서는 관심은 늘 있었지만, 어제가 오늘이 되고 내일이 오늘이 되는 일상에서 용기를 갖고 주체가 되어 움직인 적은 없었던 것 같다. 나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도 있고, 의지를 갖고 세운 기준에 의해서도 받아들일 수 있다. 올해 시작한 한국여성상담센터에서의 자원 활동가로서의 활동은 내가 누군가에게 분명하게 내가 그곳에서 울고 웃으며 함께한 경험이라고 분명하게 발음하여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시도였다. 전화 수화기 너머로 몇 차례나 고맙다는 말을 건네던 분들, 닦아줄 수 없는 눈물을 흘리던 분들이 있었다. 셀 수 없을 만큼의 눈물들이 있었고 새로운 시도들이 일어나던 순간들을 경험하며 나 또한 내가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탐색했고, 그들과 교류하고 교감하면서 살아 있음을, 살아가고 있음을 증명했던 것 같다. 원인 모를 죄책감과 우울함이라는 정체불명의 터널을 미술치료와 상담을 통해 지나며, 나의 움직임과 시도들이 토닥이는 머무름에서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조금씩 단단해지고, 조금씩 내 세상이 오롯이 나의 마음과 목소리를 통해 움직이는 용기로 뭉쳐지는 것

을 느낀다. 나의 움직이는 용기들이 계속해서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거나 속해 본 적 없는 단 1퍼센트의 소중한 경험에게 닿기를, 또 다른 움직이는 용기들로 시도되기를 그리고 함께 이름 붙여지지 못한 헤아려지지 못한 소수에게 희망으로 가닿기를, 어린 시절 친척 언니가 알려준 장님 물고기 이야기처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이라는 희망을 스스로 증명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에 닿을 수 있도록, 앞으로 활동가로서의 나라는 의미를 꼭꼭 눌러 마음에 담아 본다.

페미니즘 글쓰기

유닐

처음 파쿠르를 만난 건 6년 전 하자센터에서 ‘지속 가능한 도시를 디자인하다.’라는 워크숍에 리조와 함께 참가했을 때였다. 그리고 4월 중순, 6년 만에 처음으로 다시 여성 파쿠르 사전 워크숍에 참가하게 되었다. 사일런스 파쿠르는 해가 어둑하게 질 무렵, 새소리를 들으며 퇴근하는 사람들 사이로 담을 넘고 창문 카페의 창에 붙어 사람들의 당황스러운 시선을 마주하며 내 몸에 집중하려 애쓰는 과정이었다. 동료들과 함께였기에 해방감이 들기도 했고, 우리를 뵈히 바라보는 이들에게 우리 이상한 사람들 아니라며 파쿠르를 설명해주고 싶기도 했다.

탈코르셋을 결심하고 나서 다양한 맥락의 트라우마와 두려움을 마주해야 했다. 브라를 하지 않고 밖에 나왔다고 버럭 화를 내던 전애인과 큰 가슴을 가진 반반한 여학생들의 목록을 만들어 공유했던 중학교 남

자 동창들, 남편과 아들 이렇게 셋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두가 드러나지 않는 잠옷을 고르기 위해 신경 쓰던 어머니까지. 이제 맨얼굴과 노브라가 꽤 익숙해졌건만 사람이 많은 곳을 가거나 수업에서 남학생들과 몸을 붙여야 할 상황이 생기면 상대가 어떤 사람이건 상관없이 성적 대상화의 두려움이 앞서 몸을 사리게 된다.

물구나무를 서면 가슴 밑까지 올라가는 티셔츠가 왜 수치스럽게 느껴질까. 여성 쇼핑몰에서는 왜 자유로운 움직임이 가능한 옷들을 이렇게 찾기가 힘든 걸까. 몸을 움직이면서 이런 다양한 질문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상의와 하의를 따로 챙겨 입는 시간도 아까워 넉넉한 원피스를 집어 입고선 놀이터, 뒷산을 뛰어놀고 남을 넘어 다니던 유년 시절은 ‘수치심’이라는 감정을 느끼면서부터 사라졌다. 그리고 파쿠르를 시작하면서 전보다 단단해진 팔과 다리, 거친 손이 자랑스러워졌다.

삶은 자주 길을 찾아 떠나는 여정으로 비유되며 때로는 미로의 한가운데 내던져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우리는 남들과 다른 길을 가고자 할 때, 자주 벽에 부딪히곤 한다. 남아 있는 힘을 쥐어짜며 길을 찾아 헤

매다 키를 훌쩍 넘는 벽을 마주했을 때 느껴지는 허탈함과 막막함, 무력감은 그 벽들에 갇혀 있는 나 자신을 새삼 마주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 막다른 길을 등지고 또 다른 길을 찾아 나선다고 해도 곧 출구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은 없다. 아니 애초에 출구라는 것은 나의 환상 속에 있을 뿐 실재론 존재하지 않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동안 나는 자주 무력해졌다.

파쿠르로 벽과 나를 인지하는 방식이 달라졌다. 소수자를 억압하고 무력하게 만드는 그 벽들이 사실은 내 키 정도밖에 되지 않는 벽일지도 몰라. 용기를 내 달려가 차오른다면 생각보다 쉽게 넘어오를 수 있을지도 몰라. 모두 두려운 마음이지만 그렇기에 한 명이라도 마침내 벽을 오를 수 있었을 때의 기쁨은 더 클지 몰라. 서로 힘을 합쳐 혼자서는 넘을 수 없는 벽을 넘어보는 챌린지를 하면서 월담러들 사이에는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다. 먼저 올라가 다른 이들을 끌어주고 싶은 마음에 용기를 내어 “먼저 오를 수 있어요.” 했다. 다른 월담러가 망설임 없이 “제가 밑에 서있을게요. 밟고 올라가세요.” 했다. 충분히 부담스러운 높이가 두려워 망설이는 월담러에게 “잡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내려오세요.” 했다. 함께라면 키를 훌쩍 넘는 벽도

충분히 넘을 수 있다는 것을 맘을 흘리며 몸으로 배웠다. 나는 더 이상 무력하지 않았다.

네발 걷기로 벽을 넘던 미래청 옥상에서 준비 운동을 시작한 공유동 앞마당까지 돌아왔다. 지압판과 같은 옥상 바닥부터 살 것 같았던 계단, 수없이 걸어 다녔던 보도블록까지 손으로 느끼며 움직였다. 서울혁신파크를 둘러온 아이들이 눈을 빛내며 옆에서 무얼 하는 것이냐고 월담러들에게 물었다. “이거 동물이지요? 무슨 동물이에요?” 숨차 하면서도 월담러들이 물었다. “무슨 동물일 것 같아?” “거미 같아요. 아니면 사자!” 파쿠르를 하고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모여들고 그 신선한 에너지가 기분 좋았다.

파쿠르 일을 하기 전, 교육 현장에서 일하면서 여자 아이에게 ‘어디 여자가 남자한테 기어올라?’ 하던 만 3세 남자아이, 셔츠를 입고 온 여자아이를 보고 ‘선생님, 애가 남자 옷 입고 왔어요.’ 하던, 책상 밑에 떨어진 연필을 줍는 일조차 ‘이건 위험해서 여자는 못 하는 거야.’ 하며 여자아이들의 행동을 억압하던 만 4세 아이들을 보았다. 파쿠르는 프랑스어로 ‘길’을 뜻한다. 그 모든 아이들이 억압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세상을 꿈꾼다.

중심이 아닌 곳을 걷는 어느 존재들의 이야기 : 언어를 찾았고, 지금도 찾고 있다

유이주영

끝

정확한 시점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어렵פות이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보면, 정희진의 《페미니즘의 도전》을 접한 뒤부터였던 것 같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언어를 찾았다. 정희진의 글은 내 머리를 내리치고, 가슴을 울렸다. 20여 년 남짓한 나날을 지나오면서 고개를 갸우뚱하던 일들, 설명할 순 없지만 묘하게 불쾌했던 일들, 그냥 넘어갔었던 사건들이 두둥실 떠올랐다. 그 시절의 나와 지금의 내가 교차했다. 책 속에는 다른 시기의 나뿐만 아니라 각기 다른 삶을 사는 여성들을 가로지르는 보편의 고통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날 이후였

던 것 같다. 동네 도서관에서 페미니즘을 키워드로 검색한 책을 빌려다 읽기 시작했다. 밤새도록 읽었다. 또 읽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1년 반 정도 다니던 회사를 돌연 그만두었다. 그러고 나서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여성정책프로젝트에 실무자로 지원하게 되었고, 그렇게 본격적으로 페미니스트 활동가로 일하게 되었다. 그게 작년 여름의 일이다.

언어를 찾아 떠나는 여정 : 분열에서 연결로

나는 원래 타고난 기질도 예민하고 생각이 많기도 했지만, 유난히도 일상을 살아 내는 것이 힘들었다. 내 성격의 문제이겠거니 했다.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의 불일치, 끊임없이 불쾌한 상황을 웃어 넘겨야만 하는 일들이 내 마음을 갈기갈기 찢었다. 회사에서, 집에서 수만 번 참다가 한 번 감정을 표출하면 사람들은 ‘넌 참 유별나, 예민하네, 그래서 사회생활 하겠니’라는 말들을 내게 뱉어냈다.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내 마음에 차오르는 생각은 개별적인 것이었고, 이상한 것이었다.

어둡고 긴 동굴의 시간을 지나, 도서관에서 페미니스트들의 언어를 만났던 시간이 떠오른다. 묘한 해방감. 동시에 밀려오는 괴로움. 이중적인 마음이 교차했다. 그렇게 언어를 찾아가면서 이직을 결심했고, 옮겨온 일터에서 나는 본격적으로 활동가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 시작은 책이었지만, 본격적으로 나의 목소리를 찾아가기 시작한 것은 작년 여름 이후이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성 의제를 다루거나 일터에서 만난 사람들이 페미니스트였기 때문이다. 활동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나의 괴로움과 외로움을 나눌 동지들이 하나, 둘 생기기 시작했다. 더러는 수백수천 명. 나를 불쾌하게 만들고 괴롭히는 일들은 나 혼자만 겪는 경험 이 아니었다. 모두가 겪는 일이었다. 정희진의 말을 인용하자면, 그녀들은 모두 일상이 불편했고, 모욕적이었고, 고통스러웠다. 성희롱과 추행은 나만 겪는 일 이 아니었다. 그즈음부터 나는 스스로 동지들을 찾아다녔고, 때로는 모으기도 했다.

아침 아홉 시부터 저녁 여섯 시까지 일을 한 뒤에, 나의 고민을 나누고 싶은 친구들을 찾고 싶은 마음에 민우회에 가입해서 그림일기 소모임에도 나가보고, 십대여성인권센터의 자원활동가 교육이 있길래 신청해서 들었다. 교육이 끝나고 나서부터 청소년아웃리치활

동을 하기 시작했다. 여성주의 상담에 관심이 생겨 수
원여성의전화에서 주말에 가정폭력상담원교육을 한
다는 소식을 듣고 그 교육도 들었다. 관심이 있어서 한
활동들을 통해 자연스레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점
점 동지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 고단하고 괴롭던 경
험이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보편적이라는 것을 깨닫기
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내가 이상한
사람인가, 내가 예민한가, 내가 잘못되었나 나를 괴롭
히던 분열의 말들은 나의 동지들도 스스로에게 하던
말이었다.

동지들이 생기니 집회에 함께 갈 수 있었고, 어려운
일을 겪는 동지가 있으면 후원하고 연대했다. 나의 언
어가 적힌 배지를 사서 가방에 달았다. 일상에서 메시
지를 전하고 알렸다. 그렇게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
들을 찾아서 하게 되었고, 자연스레 동지들과 연결되
었다.

시작

그렇다면 나는 언어를 정말로 찾았는가? 잘 모르겠
다. 찾았다기보다는 여전히 찾고 있다. 계속 찾을 것인
가. 그렇다. 그러나 밖에서 찾기보다는 내 안에서, 우
리 안에서 찾아낼 것이다. 그리고 묻혀 있던 그 언어들
을 끄집어내 세상에 보여줄 것이다. 그렇다면 그 언어
를 찾아가는 삶은, 찾은 삶들은 희망적인가. 글썄. 페
미니스트라면 아마도 이제까지의 삶은 괴로웠고, 외로
웠고, 고단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녀들 모두 이미 알
겠지만 앞으로는 더 괴로울 것이고, 더 외로울 것이고,
더 고단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험난한 길을
함께 걸어나갈 수 있으니까 무섭지 않다. 앞으로 다가
올 고통들이 마냥 괴롭지만은 않을 것이다. “슬픔이
슬픔을 구원하고”, 고통이 고통을 구원하기 때문이다.

함께 걷는 길

지니

매일 아침 길을 나섭니다. 버스 한 번, 지하철 한 번 타고 도착하는 곳이 제 일터입니다. 저는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에서 성평등활동가에게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홍보하고 실행하는 일을 합니다. 어떤 교육이 필요할지, 교육을 어떤 내용으로 꾸릴지 함께 일하는 동료 선생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합니다. 큰 가닥이 잡히면, 그에 필요한 세세한 내용들을 채우고 준비합니다. 실은 이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지난 6월에 첫 출근을 하고 나서 이 글을 쓰는 지금은 3개월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너가 즐겁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일이 있어!” 하고 제 친구가 잠시 놀다 재취업을 준비하던 제게 연락했습니다. 친구의 연락으로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

의 채용 공고를 알게 되었어요. 처음 입사지원서를 쓰던 순간을 다시 떠올려봤어요. 그 당시 저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고, 삶과 일의 괴리가 크지 않은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가치를 바라보며, 가치를 만들어가는 일이면 더없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때마침 친구가 해온 연락 덕분에 저는 지금 이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하던 일은 책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이전의 일이 책이라는 물질을 매개로 독자를 마주하는 일이었다면, 지금의 일은 교육을 통해 교육 참여자를 마주하는 일이에요. 누군가를 만난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전자가 간접적인 만남이라면 후자는 직접적인 만남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이전의 습관이 배어 있어서 그럴까요, 때로 저는 수줍어지고 지금의 만남이 좋으면서도 낯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기획한 교육 프로그램이 제가 원하던 방향으로 구현되어 진행될 때, 교육 참여자들의 즐거운 웃음소리와 빛나는 눈을 바라볼 때, 어깨가 절로 올라가고 마음이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느낌 때문일까요. 저의 쓸모를 발견하고 나누는 과정이 저를 기쁘게 합니다.

제가 하는 일의 기반이 되는 페미니즘을 저는 위대한 한 순간에 만나지 않았어요. 일상의 작고 작은 순간들이 모여 페미니스트가 되었습니다. 자라면서 억울하고 불편했던 지점들을 막연히 느끼고만 있다가 이를 쏟아 낼 수 있는 언어를 배우면서 더욱 선명히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새로 만나는 책을 통해, 강의를 통해, 추상적 불편함이 구체화되었어요. 또 비슷한 것을 느끼는 사람을 결사대로 두면서 쌓여 있던 답답함을 오랜 시간 천천히 토로하고 나니 너무 시원했어요. 그런 해방감은 처음이었죠. 더 많은 사람들이 페미니스트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성 정체성으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존재 그 자체로, 모두가 자기답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그때도, 지금도 꿈꾸고 있어요. 제가 하는 일이 제가 꿈꾸는 세상으로 한 발자국 더는 여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렇지만 기대대로 안 되어도 뭐 어쩔 수 없죠. 저도 즐겁고 함께하는 사람들도 즐거운 여정이라면 충분해요.





토닥이는 마음

성평등 2018-발간자료-01

발행일	2018.10.10
발행처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
발행인	노주희
기획	교육연구팀 김지은, 박은진
디자인	디자인스튜디오 다다름
전화	02-6258-1010
팩스	02-760-7101
전자우편	equity@sacge.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sacge.kr
홈페이지	www.seoulgenderequity.kr
주소	(03371)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크 공유동 6층

타이
니
머
링
음